

2008년 8월 4일 말씀

요즘 회원들은 나에 대해 궁금해서 실제로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밤잠 못 자면서 글을 쓰느라 정신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기도해도 못 할 만큼을 내가 해주었습니다. 기도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회원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건들기만 해도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 기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 값입니다. 그러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단계 들어가면 다 떠오릅니다. 책을 쓸 때도 떠올라서 쓰는 것이지 그냥은 못 씁니다. 10년 20년 것을 다 못 쓰는 것입니다. 어제한 일도 잊어버리고, 무얼 들어도 70%이상은 잊어버립니다. 적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세계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엄청나게 뿌립니다. 일반 농사가 아니라 엄청난 농사입니다. 산에다 갖다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도 외국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비행기로 10대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십대씩 날아 올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 봤습니다. 많이 오면 힘드니까 앞으로 만 명씩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도 돈이 많이 들고 우리도 대접해야 하니까 그 정도만 오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만 와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해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야기 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힘들어서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따라 가니까 못 나온 애들 500명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딱 말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시 온 것입니다. 기도하면 저금 한 것과 똑 같습니다. 기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특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광주지역 지도자들 열심히 해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밀어붙여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요즘은 80-90살 보통 삽니다. 그 전에 아픈 것은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들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신앙이 공적입니다.

앞으로 지옥에 관한 책이 나올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내가 지옥을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놀란다고 1분밖에 안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이번엔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10명중 9명은 아마 교회 다닐 것입니다. 정말 놀랄 것입니다. 나도 보고서 너무 놀라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제일 느낀 것은 단 10분이라도 내보내주면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정말 지옥이 있다고 무조건 사실 그대로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해도 안 보내주었습니다. 지옥의 세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부귀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에 몇 달 있다가 들어왔을 때 중국에 큰일 있으니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다 나와서 팬찮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하지 말고 이제는 외국에 나가 지 말고 한국에 가서 역사 펴라고 했습니다. 지옥 론에 대해 거의 다 써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자세히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백 번 천번 만번 용서해주는지 알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전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바쁘냐고 하니 예수님께서 ‘영의 몸도 바쁘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몸이라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 시간 보다 시간이 만 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바쁘십니다.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알아줍니다. 나도 꼭 죽을 때만 살려줍니다. 전도하는 것 보고 살려줍니다. 어

뎐 어려움이 와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전도 한 것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자기 자식 살려줄 때 부모가 제일 크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못합니다. 나는 기도만 해줍니다. 무조건 끌고 오십시오. 내가 나가면 하루 동안 딱 한번 소리 지르면 교회가 5개는 생깁니다. 나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나가면 세계를 누비며 다니려고 합니다.

섭리에 목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면 괜찮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파도 벽에 기대놓고 글을 썼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먼저 건강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하십시오.

끼가 많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십시오. 코치를 받아 다 하십시오. 소질 재질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못 따라잡니다.